

동아시아에서 ‘자연(nature)’이라는 근대어휘의 탄생과 정착: 일본과 한국의 사전류를 중심으로

김 성 근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 | |
|---|-------------------------------|
| I. 들어가며 | VI. 경합에서 승리한 自然이라는 역어 |
| II. ‘자연(自然)’의 한·중·일 기원 | VII. 구한말 조선의 사전류와 nature의 역어들 |
| III. 영어 nature의 개념 변천과 근대과학 | VIII. 조선인들의 일본 유학과 ‘자연과학’이라 |
| IV. ‘란가쿠(蘭學)’의 부흥과 네덜란드어 <i>natuur</i> 는 용어 | IX. 나오며 |
| V. 번역어의 난립과 전통적 自然 개념의 균열 | |

I. 들어가며

오늘날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에서도 영어 nature는 ‘자연(自然)’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이 어휘는 학문의 분야에서는 자연과학, 자연법과 같은 파생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연보호, 자연파괴 등 일상어로도 꽤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에서 ‘자연’ 항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2)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지질적 환경. (3)[일부 명사 앞에 쓰여]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4)[철]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나 본질. (5)[철] 의식이나 경험

의 대상인 현상의 전체. (6)[교] 자연과.¹⁾

(1)(2)(5)는 인위를 거치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물질이나 대상세계를, (3)(4)는 사물의 자발적인 상태나 ‘본성’을, 그리고 (6)은 교과용 용어인 ‘자연과’의 줄임말을 가리킨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문헌에 등장하는 ‘자연(自然)’은 대부분 (3)이나 (4)에 해당했다. 예를 들어, 천지자연(天地自然)의 경우, 오늘날의 서구어 nature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보다는 오히려 ‘천지’였다. 즉, 이때의 ‘천지자연’이란 ‘천지가 인위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가리켰던 것이다. 한편 (1)(2)(5)의 ‘자연’은 무기물과 유기생명을 포함한 객관적 자연계로서, 이 같은 ‘자연’이 한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아마도 불과 100여 년 전 쯤, 그것은 서구어 nature의 번역어로 탄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연’이라는 어휘의 이 같은 두 가지 주요한 개념은 현재의 일본어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대표적인 일본어 사전인 『코우지엔(廣辭苑)』 제5판(東京: 岩波書店, 1998)을 보면, 自然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스스로 그렇게 된 상태. 인위가 더해지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상태. ②(그리스 *physis*, 라틴 *natura*, 영국 *nature*) 인공·인위로 이루어진 문화에 대해 스스로의 생성·전개에 의해 이루어진 상태. 스스로의 생성·전개를 유발시키는 본유의 힘으로서의 사물의 성(性), 즉 본성, 본질. 산천·초목·바다 등 인류가 태어나 생활해 온 장소나 삼라만상. 정신에 대해 외적 경험의 대상의 총체. ③사람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것. 만일, 어쩌면 등등.²⁾

여기서 ①은 메이지(明治, 1868) 이전 일본에서 사용되던 주요한 ‘自然’ 개념이었고, ②는 메이지 이후 일본에 유입된 서양의 nature의 개념, 그리고 ③은 현재는 거의 사라져버린 개념이다. 현대 일본어의 自然 개념은 ①과 ②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사물이 어떤 외적 힘의 개입 없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의 自然 개념이 유사점이라면, ‘정신에 대해 외적 경험의 대상적 총체’를 뜻하는 개념은 19세기 후반 서구어 nature가 일본에 유입하면서 새롭게 생성된 개념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연’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약 100여 년 전, 한국과 일본에서 비슷한 변동을 거쳤다는 사실과 만나게 된다.

1)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표준 국어대사전』 하권, (두산동아, 1999), 5130쪽.

2) 新村出 編, 『廣辭苑』(東京: 岩波書店, 1998), 1174쪽.

본고의 목적은 서구어 nature로서의 ‘자연’ 개념이 동아시아에 탄생하여 정착한 과정을 근대화시기 일본과 한국의 사전류를 중심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 개념의 변천에 대해 다룬 연구는 적지 않지만,³⁾ 근대 동아시아에서 ‘자연’이 서구어 nature의 역어로 탄생한 과정을 원전에 근거하여 엄밀하게 추적한 연구는 많지 않다. 아울러 메이지 일본에서 태동한 근대적 ‘자연’ 개념이 한국과 중국의 역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토(伊藤)의 주장대로 동아시아에서의 근대적 ‘자연’ 개념이 메이지 일본에서 성립하여 중국과 한국으로 전래된 것이라면,⁴⁾ 그 성립과 전파의 역사를 문헌에 의거하여 자세히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애당초 번역어의 성립과 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많은 자료들에 대한 장시간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 특히 근대 한국어의 경우는 일본에서 탄생한 용어들을 대량으로 수입한 역사를 갖고 있는 관계로, 메이지 일본어의 변동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근대과학용어의 교류에 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는 우선 역어의 변동과 개념 변화를 추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사전류를 중심으로 서구어 nature가 한일 양국에서 어떻게 번역되었고, 나아가 양국의 번역 역어의 성립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본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自然’이라는 한자어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탄생했고, 전파되었는지를 한·중·일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서양권에서 영어 nature의 개념이 변천해온 과정을 정리하고, 그것과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에 이입한 서양 근대과학과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서구어 nature가 일본에 이입하여 ‘自然’을 번역어로 취하게 된 과정을 바쿠마쓰(幕末)·메이지기의 사전류를 중심으로 추적하고, ‘自然’이라는 어휘가 천지, 만물 등 여타의 경

3) 伊藤俊太郎, 『自然』(東京: 三省堂, 1999); 寺尾五郎, 『「自然」概念の形成史: 中國・日本・ヨーロッパ』(東京: 農文協, 2002); 池田善昭 編, 『自然概念の哲學的變遷』(京都: 世界思想社, 2003); 辻哲夫, 『日本の科學思想』(東京: 中公新書, 1973), 155-175쪽; 佐藤喜代治 編, 『語誌Ⅱ』第10卷(東京: 明治書院, 1983), “自然” 항목은 佐藤喜代治에 의한다. 176-180쪽; 三枝博音, “自然という呼び名の歴史”, 『三枝博音著作集』第12卷(東京: 中央公論社, 1973); 柳父章, 『翻譯の思想: 自然とnature』(東京: 平凡社, 1981); 柳父章, 『翻譯語成立事情』(岩波新書, 1982), 125-148쪽; 신승환, “자연이란 무엇인가”, 『우리말 철학사전』 1 (지식산업사, 2001), 271-298쪽. 아울러, 메이지 이전 일본의 自然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相良亭, 『日本の思想』(東京: ぺリカン社, 1989), 37-65쪽.

4) 伊藤俊太郎, 앞 책, 63쪽.

쟁적인 역어들 사이에서 nature의 주요한 역어로 성립한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구어 nature가 구한말 조선의 사전들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정리하고, 일본에서 탄생한 ‘自然’이 한국에서 nature의 유력한 역어로 등장한 배경을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파악해 볼 것이다.

II. ‘자연(自然)’의 한·중·일 기원

‘자연’이라는 어휘의 기원과 발달을 논한 종래의 연구들은 ‘자연’(自然—이하 이 표기로 통일하고자 한다)이 중국 기원의 한자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문헌에 나타난 自然의 첫 출처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기원전 300년경)으로 알려진다.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사람은 대지의 변화를 따라 생활하고, 대지는 하늘의 운행을 따라 변화하고, 하늘은 도(道)를 따라 운행하고, 도(道)는 그 자신을 따라 운동한다.—필자의 번역)(제25장).

우주의 궁극적 근원인 도(道)가 그 자신을 따라 운동한다고 하는 이 문장에서 自然은 ‘외적 사물의 집합적 총체’가 아니라, 인위(人爲)를 거치지 않은 ‘스스로 그러한’ 상태, 즉 무위(無爲)의 상태를 가리켰다.⁵⁾ 이 밖에도 노자는 自然이라는 용어를 네 차례 더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본성’, ‘스스로’ 혹은 ‘스스로 그러한’과 같은 의미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⁶⁾ 후한(後漢, 22-220)의 허신(許愼, 58-147)이 쓴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상형문자인 自然의 自는 원래 “鼻也象鼻形(코와 같다. 코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즉, 사람이 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보통 코를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自는 곧 ‘자기 자신’ 혹은 ‘스스로’를 의미했다는 설이 있다. 나아가 然은 고대의 문헌에서는 주로 조자(助字)로 사용되어, 사물의 어떤 ‘상태’ 등을 표현했다. 따라서 고대 중국에서의 自然

5) 중국과학사 연구자 조셉 니덤도 이 마지막 문장을 “The Tao came into being by itself”라고 번역했다.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6), p. 50을 참조.

6) 네 곳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功成事遂, 百姓皆謂我自然”(17장), “希言自然”(23장), “夫莫之命而常自然”(51장), “以輔萬物之自然而不敢爲”(64장).

은 주로 ‘스스로 있는(그리한) 상태’를 의미했다.⁷⁾

이 自然이라는 어휘는 ‘고유의 일본어’에는 물론 초기의 한국어에도 존재하지 않았다.⁸⁾ 테라오 고로(寺尾五郎)는 自然이 일본에 유입한 것은 두 차례에 걸친 중국문화의 전파 때문이라고 조사했다. 먼저, 나라·헤이안(奈良・平安, 8-12세기) 시대에 불교가 일본에 전해졌을 때, 오음(吳音), 즉 중국 양자강 하류의 강남 지방에 일어난 오국(吳國)의 남방음이 유입했다. 이후 견당사 등을 통해 수·당(隋唐)의 수도였던 장안지방(長安地方)의 북방음인 한음(漢音)이 유입했다. 그런데 당시 불교 계인 오음의 自然은 ‘지넨(じねん)’으로 발음되었고, 한음의 自然은 ‘시젠(しぜん)’으로 발음되었다.⁹⁾ 그 후 에도시대에는 유교와 한문학이 발달하면서 한음의 自然 발음이 보편화되었다. 동시에 이 自然을 혼독하여 自(오노즈카라) 然(시카루) 혹은 自(미즈카라) 然(시카루)로 읽는 방법도 등장했는데, 둘 다 사물의 자발적 발생의 의미에는 변함이 없었다. 에도시대에 自然이라는 어휘가 지녔던 의미에 대해서는 종래 다양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대체로 사이구사 히로토(三枝博音)의 정리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즉, 에도시대에 自然은 ‘외적 사물의 집합적 총체’로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었고, 대부분 ‘스스로 그리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서구어 nature에 해당하는 일본어로는 오히려 천지, 만물, 만유(萬有) 등이 대응했다.¹⁰⁾ 이 같은 自然의 활용은 고대 이래 중국에서도 유사했다. 『도덕경』의 용례에서처럼, 당시 서구어 nature에 해당했던 중국어는 천지, 만물, 조화(造化) 등이었고, 혹은 금수초목, 산천초목 등 구체적인 대상이 직접 지칭되기도 했다.¹¹⁾ 하지만, 自然은 대부분의 경우,

7) 고대 중국의 自然 개념의 전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오비(小尾)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의 문학에 나타난 自然 개념과 자연관을 폭넓게 규명했다. 小尾郊一, 『中國文學に現われた自然と自然觀』(東京: 岩波書店, 1962). 마즈모토(松本)는 주로 노장사상을 중심으로 자연사상의 전개를 추적했다. 松本雅明, 『中國古代における自然思想の展開』(松本雅明博士還暦記念出版會, 1973). 이 밖에도 内山俊彦, 『古代中國思想史における自然認識』(東京: 創文社, 1987); 笠原伸二, 『中國人の自然觀と美意識』(東京: 創文社, 1982); 鈴木喜一, 『東洋における自然の思想』(東京: 創文社, 1992) 등을 참조.

8) 大野晋, 『日本語の年輪』(東京: 有紀書房, 1961), 11-13쪽. ‘고유의 일본어’란, 이른바 ‘야마토 고토바(大和言葉)’를 일컫는 것으로, 일본에 한자어와 외래어가 전해지기 전에 존재했던 순수한 일본어를 뜻한다.

9) 寺尾五郎, 앞 책, 141쪽.

10) 三枝博音, 앞 논문, 337쪽.

11) 물론, 천지·만물·조화 사이에는 구별이 필요할지 모른다. 중국사상사에서 ‘천지’는 보통 자연계 전체를 포괄한 반면, ‘만물’은 구체적인 사물 전체를, 그리고 ‘조화’는 그것

사물이 ‘스스로 그러한’ 어떤 자발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自然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한반도에서 사용되었을까? 한국인 연구자들도 그것이 중국 기원의 용어이며, 근대 이전에는 서구어 nature와의 사이에 개념적 차이가 있었다는데 대부분 일치하는 듯하다.¹²⁾ 하지만, 그 유입의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인터넷판)을 검색해 보면, 『태조실록』 총서(總序) 117번째 기사에는 “是乃自然之理(이것이 곧 자연의 이치이다.)”¹³⁾라는 표현이 나온다. 물론, 여기의 自然은 ‘스스로 그러한’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의 nature와는 다른 것이다. 『태조실록』의 완성은 태종 13(1413)년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조선 초기부터 自然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태조실록』에는 自然의 용례가 세 차례 더 나오고 있지만, 모두 ‘자연히’, ‘자연의’ 등의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보다 더 이른 自然의 용례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알려지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의 『삼국사기』에는 自然의 용례가 세 차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5권 백제본기(百濟本紀) 제3의 개로왕(蓋鹵王)을 보면, “託命自然之運(목숨을 자연의 운수에 맡긴다.)”는 표현이 나온다.¹⁴⁾ 여기서의 自然도 물론 ‘스스로 그러한’과 같은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제7권 문무왕(文武王) 하(下), 제22권 보장왕(寶藏王) 하(下)에도 自然의 용례가 나오는데, 모두 서술적인 용법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고려 인종 23(1145)년에 완성된 것으로 볼 때, 自然이라는 용어는 늦어도 12세기 중엽까지는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서양 근대학문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19세기 중엽 조선을 대표하는 자연철학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한기(崔漢綺, 1803-1877)는 인식론적 저서인 『추측록(推測錄)』(1836) 안에서 自然을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자연이란 천지유행의 리이고, 당연이란 인심추측의 리이다.¹⁵⁾

들이 변화해가는 힘을 표현하는데 중점이 놓여 있었다.

12)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도교와 생명사상』(국학자료원, 1998), 222쪽; 이동철·최진석·신정근 엮음, 『21세기의 동양철학』(을유문화사, 2005)의 “자연” 항목을 참조, 207-214쪽; 이정우, 『개념 뿌리들』(철학아카데미, 2004), 제2장 ‘자연’을 참조.

13) 문헌 자료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발행, 『태조강헌대왕실록』(1972), 16쪽.

14) 金富軾, 『三國史記原文』(靑化, 1985), 184쪽.

최한기는 自然을 천지가 유행하는 리(理)라고 규정했는데, 이 구절에서 오늘날의 nature와 가까운 것은 自然이 아니라 오히려 ‘천지’였다. 이 밖에도 최한기가 사용했던 自然은 거의 대부분 기(氣)의 운행에 내재된 ‘본성’이거나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었다. 동시에 오늘날의 nature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한기가 주로 사용했던 용어는 ‘천지’를 비롯하여, 천지인물(天地人物), 만물, 산천초목 등이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고대 중국에서 상형문자로 탄생한 自然은 조선의 경우 늦어도 12세기 중엽까지는, 일본의 경우 에도시대 이전까지는 이미 양국에 수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날 서구어 nature의 주요한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는 ‘외적 사물의 집합적 총체’의 自然과는 달리, 한·중·일 사이의 활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스스로 그러한’과 같은 사물의 자발적 ‘상태’를 표현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영어 nature의 개념 변천과 근대과학

Nature의 역어로서 自然이 채택된 경위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서양권에서 nature의 개념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영어와 프랑스어의 nature, 독일어 Natur, 네덜란드어 natuur 등은 그리스어의 ‘퓨시스(*physis*)’와 그 라틴어역의 ‘나츄라(*natura*)’에 기원을 두고 있다. ‘퓨시스’라는 명사는 원래 ‘퓨오-퓨오마이(*phyo-phyomai*)’라는 동사에서 유래한다.¹⁵⁾ ‘퓨오’라는 동사는 타동사형으로 ‘낳다, 탄생시키다, 성장시키다’를 의미했고, ‘퓨오마이’는 자동사형으로 ‘태어나다, 생성하다, 성장하다’를 의미했다. 이 동사들의 어근 phy-에 추상명사를 만드는 어미 -sis가 결합하여 *physis*, 즉 ‘탄생, 생성, 성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본성, 성질’ 등을 역시 그 주요한 개념으로 취하게 되었다. 서양에서의 nature의 역사를 그리스의 자연관, 르네상스의 자연관, 근대적 자연관으로 나뉘던 콜링우드(R. G. Collingwood)는 그리스 시대에 ‘퓨시스’가 아주 드물게 자연물의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사물에 내재된 ‘본성’의

15) 崔漢綺, “推氣測理·自然當然”, 『推測錄』卷2 (『增補 明南樓叢書(一)』,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2002), 134쪽: “自然者, 天地流行之理也. 當然者, 人心推測之理也.”

16) Gerard Naddaf, *The Greek Concept of Natur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5), p.12.

로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⁷⁾ 이 같은 초기 그리스의 ‘푸시스’ 개념은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자기 자신 안에 운동과 정지의 원리를 갖는”¹⁸⁾ 사물의 ‘본성’으로 정리되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세계는 동적인 것으로, 그것의 ‘운동’이란 사물이 잠재적인 질료의 단계에서 형상을 목적으로 자기 발전하여 완성되는 과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하 는 그리스의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면서 감각을 가진 유기체 같은 것이었다.¹⁹⁾ 그리고 인간은 그것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의 일부에 포함되고, 신(God)조차도 그 안에 내재된다고 여겨졌다.²⁰⁾

그리스어 ‘푸시스’는 라틴어 ‘나츄라’로 번역되었다. ‘나츄라’는 *nasco*, 즉 ‘태어나다’라는 완료분사 *natus*에서 온 것으로, ‘본성, 태어난 그대로의 것’을 주요한 의미로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고대 원자론으로 유명한 루크레티우스의 저서 *De rerum natura*는 보통 영어로는 *The nature of things*나 *On the nature of things*로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사물의 본질(혹은 본성)에 대해”라고 해석 가능하다. 이처럼 ‘나츄라’는 주로 ‘본질’, ‘본성’, ‘생성력’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자연’에 대한 그리스 이후의 관념도 현저한 전환을 겪게 된다. 즉, ‘자연’을 신의 피조물로 보는 관점의 확산이었다. ‘자연’은 내재된 ‘본성’이나 자기 발전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는 초월자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관념이 강화되었다. 이 같은 기독교적 자연 이해는 르네상스 이후의 자연철학자들에게도 폭넓게 공유되었다.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만년의 저작 『신기관(*Novum organum*)』(1620)에서 “자연(*natura*)은 이(*scientia*, 지식)에 복종하지 않고는 정복되지 않는다”²¹⁾고 말했다. 라틴어 ‘스키엔티아(*scientia*)’는 ‘앎’, ‘지식’등의 의미로 훗날 영어 *science*의 어원이 된 것이다. 베이컨에 의해 ‘스키엔티아’는 자연 정복의 학문으로 위치 지워졌던 것이다. 나아가 베이컨은 “신의 말을 기록한 책, 또는 신의 작업(*works*)을 기록한 책, 즉 신학(*divinity*) 또는 철학(*philosophy*)”²²⁾이라고 써서 인간은

17) R. G. Collingwood, *The Idea of N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5), p.44.

18) Aristotle, *Physics II*, part1을 참조.

19) Errol E. Harris, “Science and Nature,” George F. Mclean, eds., *Man and N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26.

20) 伊藤俊太郎, 앞 책, 16쪽.

21) Francis Bacon, *Francis Bacon's Novum Organum* edited with Introduction, Notes, etc., by Thomas Fowler (Oxford: Clarendon Press, 1878), p. 188.

신이 쓴 제2의 성경=‘자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기 위해 자연철학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신-자연-인간의 일체성은 붕괴되고, 3자가 계층적으로 재편된 결과, 자연은 인간을 위해, 인간은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데카르트는 ‘자연’을 신이 만든 물질의 집합으로 간주하고자 했다. 그는 『우주론(*Le Monde*)』(1633)에서 ‘자연’에 대해 논하며 “나는 (그것을) 어떤 신성(deity)이나 다른 종류의 상상의 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 용어를 물질(matter) 그 자체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다”²²⁾고 쓰고 있다. 뉴턴도 비슷한 선상에 위치했다. 주지하듯이 뉴턴의 관성 법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하는 물체는 정지의 상태를 지속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의 상태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뉴턴의 ‘자연’이 가진 무생명성 또는 수동성의 표현이었고, 운동과 정지의 원리를 내부에 가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의 본질적 차이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nature는 중세 기독교 신학의 영향권 안에 있던 초기 근대 과학자들에 의해 신이 인간에게 내려 준 선물로, 그리고 신의 그 경이로움을 깨닫기 위해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 같은 관념은 코페르니쿠스를 시작으로, 베이컨, 데카르트, 케플러, 보일, 뉴턴은 물론 그 유명한 종교재판에 의해 근대과학과 종교의 투쟁을 상징하는 갈릴레오조차도 공유한 것이었다. 라틴어 *natura*의 번역어로 탄생한 nature는 이제 사물의 ‘본성’이라는 그리스 기원의 전통적 개념에 더하여, 인간으로부터 독립한 외적 사물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게 되었다. 비록 18세기를 거치며 nature의 창조자이자 조율자로서의 신의 위치가 불안정해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대상적 세계’로 포착된 nature는 근대 이후 과학의 성장에 동반하여 동아시아로의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IV. ‘란가쿠(蘭學)’의 부흥과 네덜란드어 *natuur*

1633년 에도 막부가 쇄국정책을 단행했을 때, 유일하게 통상이 허용된 서양 국

22) Francis Bacon, *The Advancement of Learning*, edited by William Aldis Wright (Oxford: Clarendon Press, 1891), p. 10.

23) Rene Descartes, *The World and other Writings*, translated and edited by Stephen Gaukrog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25

가는 네덜란드였다. 나가사키(長崎)라는 작은 항구에 제한된 서양문물의 수용은 그러나 곧 ‘란가쿠(蘭學)’, 즉 ‘네덜란드를 통한 서양학문’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란가쿠’의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악전고투 끝에 네덜란드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 1733-1817)의 『해체신서(解體新書)』(1774)²⁴였지만, 정작 일본 최초의 난화사전(蘭和辭典)이 출판된 것은 그로부터 22년 뒤인 1796년 이나무라 산파쿠(稻村三伯, 1758-1811)의 『할마와게(波留麻和解)』였다. 네덜란드인 프랑소와 할마(François Halma)의 『난불사전(蘭佛辭典)』(1729)을 저본으로 약 14년간에 걸쳐 준비된 이 사전에는 네덜란드어 *natuur*(영어 *nature*)의 역어로 일찍부터 自然이 등장하고 있다.

natuur: 神力ニテ造ル, 造化神, 性質, 形狀, 自然ノ理, 自然.

natuurlijk (영어 *natural*): 自然ニ, 自然ニ爲ス, 自然ニ移ル, 相應.²⁵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일본에서 네덜란드어 *natuur*가 自然을 역어로 취한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이 역어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던 듯, 이후의 난화사전들에서는 自然이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 1816년 헨드릭 되프(Hendrik Doeff)가 역시 할마의 『난불사전』을 참고로 『되프할마(道富法爾馬)』를 간행했을 때, *natuur*의 역어로는 “造物者ニ造ラレタルモノ(조물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하 괄호 안은 필자 주), 本體, 造物者ノ力(조물자의 힘), 造物者, 性質” 등이 나오고, 自然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그 증보판에 해당하는 가츠라가와 호슈(桂川甫周, 1826-1881)의 『화란자휘(和蘭字彙)』(1858)에서도 *natuur*의 역어에 自然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당시 ‘란가쿠사(蘭學者)’들은 네덜란드어 *natuur*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뉴턴 역학을 일본에 소개한 시즈키 타다오(志筑忠雄, 1760-1806)는 『역상신서(曆象新書)』(1798-1802)안에서 *natuur*를 自然이라 번역하지 않고, ‘천지(天地)’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곧 “나를 제외한 모두가 외물(外物)”²⁶이라고 규정된 것

24) 이 책은 원래 독일의 의학자 요한 아담 쿠르무스(Johann Adam Kulmus, 1689-1745)에 의한 *Anatomische Tabellen*의 네덜란드어 번역본 *Ontleedige Tafelen* (Amsterdam, 1734)을 스기타 겐파쿠를 비롯한 에도 후기의 ‘란가쿠사’들이 한어로 번역한 것이다.

25) 稻村三伯 編, 『波留麻和解』 第4卷 (東京: ゆまに書房, 1997), 416-417쪽.

26) 志筑忠雄, 『曆象新書』 (三枝博音 編, 『日本哲學思想全書』 第6卷, 東京: 平凡社, 1980), 93쪽: “我を除いては悉く皆これ外物なり.”

이었다. 히로세 켄코(廣瀬元恭, 1821-1870)의 경우는 1852년의 『이학제요(理學提要)』에서 네덜란드어 *natuur*에 일본어 음역을 직접 대응시키고 있다. 히로세는 책의 총론에서 “무릇 물(物)이란 부재(覆載, 천지) 사이에 산재(散在)하여 우리 오관(五官)에 촉각(觸覺)하는 것으로, 이것을 ‘納都烏爾’라고 부른다. 만유(萬有)의 뜻이다”라고 썼다.²⁷⁾ ‘納都烏爾’은 네덜란드어 *natuur*의 일본식 발음에 한자어를 대응시킨 것이다. 히로세는 이것을 천지 사이에 있는 물(物)이며, ‘만유’로 번역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란가쿠샤’들은 메이지 이전부터 네덜란드어 *natuur*를 접했고, 그것을 인간 밖에 있는 것, 즉 인간이 인식 기관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대상적 세계’로 간주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의 역어로는 보통 ‘천지’ 혹은 ‘만유’등을 사용했던 것이다.

메이지 시대 들어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메이지 초기 서구어 *nature*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自然으로 번역한 사람은 니시아마네(西周, 1829-1897)였다. 니시는 메이지 유신 직전, 일본 최초의 공식적인 서양유학생으로 네덜란드에 건너가 약 2년간 서양학문을 배웠다. 귀국 후에는 일본 최초의 근대철학자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철학, 주판, 객관 등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는 다수의 학술용어들을 제조하기도 했다. 니시가 서구어 *nature*를 自然으로 번역한 문헌상의 첫 출처는 1873(메이지 6)년경 영국의 실증주의 철학자 루이스(George Henry Lewes)의 책을 번역한 『생성발온(生性發蘊)』²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니시는 이 책에서 지식의 진보를 신학적, 형이상학적, 실증적 단계로 구분한 콩트의 3단계설을 소개했다. 루이스의 책에 의하면, 인간 지식의 제1단계인 신학적 단계는 자연현상의 설명에 신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의 사람들은 천동번개를 신의 노여움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 1단계의 신학적 단계는 지식의 진보에 따라 2단계의 형이상학적 단계로 발전하는데, 이 단계는 자연현상의 설명에 각종 추상적인 힘들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The highest condition of this stage is when all these

27) 廣瀬元恭, 『理學提要』(三枝博音 編, 『日本科學古典全書』第6卷, 東京: 朝日新聞社, 1942), 363쪽: “凡そ物, 覆載の間に散在して我が五官に觸覺する者, 之れを納都烏爾と謂ふ. 萬有の義なり.”

28) 『생성발온』은 루이스의 콩트 철학 개설서 *The Biographical History of Philosophy, from its origin in Greece down to present day* (1857)의 콩트 소개 부분과, 역시 루이스의 *Comte's Philosophy of the Sciences, being an exposi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cours de philosophie positive of Auguste Comte* (1853)의 제1부 후반부(section 16-21)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forces are brought under one general force named Nature(이 단계의 최고 상태는 모든 그러한 힘들이 ‘Nature’라고 불리는 하나의 일반적인 힘 아래 규합하는 것이다).”²⁹⁾ 니시는 여기서 “one general force named Nature”를 “自然이라는 통일력(自然ト名ケタル總一力)”으로 번역했다.³⁰⁾

물론, 니시가 nature를 모두 自然으로 번역한 것은 아니었다. 지식 진보의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신학적 단계를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In the Theological stage, the mind regards all effects as the productions of supernatural agents, whose intervention is the cause of all the apparent anomalies and irregularities. Nature is animated by supernatural beings.³¹⁾

이것을 니시의 번역문³²⁾과 대조해 보면, 니시는 “all effects”를 만유(萬有)로, “nature”를 천지(天地)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곧 니시가 서구어 nature를 문맥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번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니시가 nature를 自然으로 번역했을 때, 그것은 ‘외적 사물의 집합적 총체’의 의미였을까? 문맥을 살펴보면, 自然은 어떤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힘’, 즉 사물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니시는 nature의 번역어로 自然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외적 사물의 집합적 총체’의 의미가 아닌, 어떤 사물에 내재된 힘, 즉 ‘본성’이나 ‘생성력’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다.

V. 번역어의 난립과 전통적 自然 개념의 균열

메이지의 외래어 번역 사업은 니시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번

29) George Henry Lewes, *The Biographical History of Philosophy*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857), p. 780.

30) 西周, 『西周全集』 第1卷 (東京: 宗高書房, 1960), 49쪽: “此地位ノ至高ナル度ニテハ, 凡テ萬有ノ諸力ヲ以テ, 自然ト名ケタル總一力ニ歸シタルナリ.”

31) George Henry Lewes, *op. cit.*, p. 780.

32) 西周, 앞 책, 49쪽: “神理學ノ地位ニテハ, 人皆萬有ヲ以テ, 理外ノ者アリテ, 之ヲ生造スル者ナリトシ, 而モ其森羅萬象ノ, 錯出紛起スルハ, 皆理外ノ者ノ, 製造スル所ナリト謂ヘリ, 故ニ, 此天地ハ, 理外ノ體アリテ, 其生々化々ヲ運ラシ.”

역 사업은 매우 복잡한 어휘들의 취사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 카토(加藤)는 메이지 초기의 번역 사업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란가쿠샤’들이 만든 역어의 차용. (2)중국산 역어의 차용. (3)고전 중국어휘의 전용(轉用). (4)신조어.³³⁾ 메이지의 번역 방법을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때, 自然이라는 용어는 (3)에 해당할 것이다. 自然은 중국 기원의 어휘로서 에도시대 이전 일본어 안에 편입되었다가, 19세기에 이르러 nature의 역어로 채택됨으로써 종래의 개념에 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사실 그 같은 역어의 예는 自然 이외에도 매우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학(文學)이라는 용어는 그 용례가 이미 『논어』에 등장한다. 즉, 「선진편(先進篇)」에는 “文學子游子夏”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자는 제자들의 재능을 덕행·언어·정사·문학 등으로 나누고, 자유(子游)와 자하(子夏)가 ‘문학’에 능하다고 칭찬했다. 그런데 이때의 ‘문학’은 19세기에 literature의 역어로 채택된 ‘문학’과는 다른 것으로, 학문, 학예와 같은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이후의 ‘문학’은 고전의 용례와 큰 개념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4)의 신조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서구어 nature가 自然으로 번역되기까지는 여타의 역어들과의 사이에서 치열한 경합을 거쳐야만 했다. 잠시 사전 자료를 통해 그 경합의 실상에 접근해 보자.

바쿠마쓰에 편찬된 대표적 사전으로, 니시도 편집에 참가했던 『영화대역 수진사서(英和對譯 袖珍辭書)』(1862)³⁴⁾에는 nature와 natural의 역어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nature: 天地萬物, 宇宙, 本體, 造物者, 性質, 天地自然ノ道里, 品種.

natural: 自然ノ, 天造ノ, 生レ得タル, 當リ前ノ, 天地萬物ノ.

즉, 이 사전에서는 nature의 역어로 自然이라는 용어는 채택되지 않았다. 역어들 중의 하나인 “天地自然ノ道里(천지자연의 도리)” 안에 自然은 “천지의 자연스러운 도리”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 nature에 해당하는 것은 自然보다는 오히려 ‘천지’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바쿠마쓰와 메이지기에 일본의 사전 편찬에 큰

33) 加藤周一・丸山眞男 編, 『翻譯の思想』(東京: 岩波書店, 1991), 342-380쪽.

34) 이 사전의 편찬자는 호리 다츠노스케(堀達之助, 1823-1894)로, 1853년 페리 함대가 일본에 원정했을 때, 일본 측의 네덜란드어 통사를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영향을 미친 헵번(James Curtis Hepburn)은 1867년 『화영어림집성(和英語林集成)』(초판)을 편역했고, 1872년에 증보재판을 상해에서 인쇄했다. 이 사전의 초판에서 nature의 항목을 찾아보면, “生, 質, うまれつき(천성 또는 본성), 性質, 生涯, 性”등이고, 증보 재판에는 거기에 “もちまえ(타고난 성질)”가 더해져 있다. 또 페리의 통역원으로 일본 원정에 참가했던 윌리엄스(S. Wells Williams)는 *An English and Chinese Vocabulary*(1844)를 간행했는데, 이 사전을 『영화자휘(英華字彙)』(1869)로 번각했다. 이 사전은 일본에도 널리 보급되었는데, nature의 역어에는 “性, 天理”가, natural의 역어에 “天性的”이 대응하고 있다. 물론, 自然을 nature의 역어로 취한 사전들도 간간히 등장했다. 1864년 무라카미 히데토시(村上英俊)의 『불어명요(佛語明要)』와 1873년의 시바타 마사키치(柴田昌吉) 등이 편찬한 『부음삽도 영화자휘(附音插圖 英和字彙)』에서는 自然이 nature의 역어로 채택되고 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 외국어 사전 편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³⁵⁾ 自然을 natural이나 naturally의 역어로 취한 사전들도 다수 등장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메이지 일본에서 간행된 최초의 철학사전인 이노우에 테즈지로(井上哲次郎, 1856-1944)의 『철학자휘(哲學字彙)』(1881)는 自然을 natural의 역어로 취하고 있다.

nature: 本性, 資質, 造化, 宇宙, 洪鈞, 萬有.

natural: 合性, 自然, 天真.

이노우에의 『철학자휘』는 영어 science를 ‘과학’으로 번역한 최초의 사전으로, 메이지 시대에 그 영향력은 매우 컸다. 그러면, 이 사전이 自然을 nature의 역어가 아니라, natural의 역어로 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당시 自然이라는 용어가 ‘스스로 그러한’과 같은 형용사나 부사로 기능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1884년의 『철학자휘』 개정 증보판에서도 自然은 여전히 natural의 역어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또 다른 사전에도 보인다. 메이지 8년(1875), 어네스트 사토(Ernest Mason Satow, 1843-1929), 이시바시 마사타카(石橋政方,

35) 하야카와(早川)에 따르면, 메이지 이전에 일본 국내에서 편찬된 영화(英和)·화영(和英) 사전류는 보통 한해 한두 권에 불과했지만, 1868년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하여 메이지 21(1888)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삼십 권이 간행되었다. 早川勇, 『日本の英語辭書と編纂者』(横浜: 春風社, 2006)를 참조.

1839-1916)가 출판한 *An English-Japanese Dictionary of the Spoken Language*에서는 自然이 naturally에 대응하고 있다. 즉, “naturally: *shizen(c)ni; shizen, shizen to, jinen(c)ni*”로 되어 있어, 自然(*shizen*)이 문법적으로는 부사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12(메이지45)년 이노우에는 종래의 사전을 『영독불화철학자휘(英獨佛和哲學字彙)』라는 이름으로 재차 증보 간행했다. 여기서 自然은 흥미롭게도 그 번역 원어를 뒤바꾸고 있다. 즉, 自然은 natural로부터 nature의 역어로 이동하고, natural에는 종래의 自然 대신에 “自然的”이라는 용어가 대응하게 된 것이다. 명사 nature는 물론, 형용사 natural, 부사 naturally의 역어로 사용되기도 했던 自然이 nature의 역어 즉 명사로 수렴하는 문법의 고정이 일어났음을 엿보게 한다. 사실, 명사 nature를 自然으로 번역하는 사전들은 메이지 중엽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영국 계통의 사전으로 넷톨(Peter Austin Nuttall)이 쓰고 타나하시 이치로(棚橋一郎, 1863-1942)가 번역한 『영화쌍해자전(英和雙解字典)』(1885)에서 nature에는 自然이라는 역어가, natural에는 自然ノ(자연의)라는 역어가 대응하고 있다. 그로부터 3년 뒤 미국인 이스트레이크(Frederick Warrington Eastlake, 1858-1905)와 타나하시 이치로가 번역한 『웹스터씨 신간대사서: 화역자휘(ウェブスター氏 新刊大辭書: 和譯字彙)』(1888)에서도 그 같은 역어들을 볼 수 있다.³⁶⁾ 하지만, 이 사전들이 취한 nature의 역어로서의 自然이 ‘외적 사물의 집합적 총체’를 의미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Nature 자체가 사물의 ‘자발적 상태’나 ‘내재적 힘’, ‘본성’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번역어인 自然도 동일한 개념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自然을 여전히 nature의 역어로 채택하지 않은 사전들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시마다 유타가(島田豊, 1848-1899)가 번역 편찬한 『부음삽도 화역영자휘(附音插圖 和譯英字彙)』(1888)에서는 nature의 역어에 自然은 없지만, natural에 自然ノ(자연의), naturally에는 自然ニ(자연스럽게)라는 역어가 대응하고 있다. 또 1884년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889년에 합본 출판된 세키 신파치(尺振八, 1839-1886)의 『메이지 영화사전(明治英和字典)』도 nature에 많은 일본어 역어를 대응시키면서도, 정작 自然은 역어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

36) 한편, 오늘날에도 유명한 노아 웹스터(Noah Webster)의 영어사전의 초판이 나온 것은 1828년이다. 이 사전은 출판되자마자, 영국계의 사전들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메이지 이후 영화사전들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표 1〉 메이지 전후의 사전류에 보이는 nature와 natural의 역어들

발행 년도	사전의 종류	nature의 역어들	natural의 역어들
1796 (네)	稻村三伯, 『波留麻和解』	自然, 神力ニテ造ル, 造化神, 性質, 形狀, 自然ノ理, 欲シ好ム, 自然ノ好欲, 損ズル, 枯ル	自然ニ, 自然ニ爲ス, 自然ニ移ル, 相應, 自然ス, 總テ, 房事又損缺, 邪淫, 詳密, 習癖
1862 (네)	堀達之助 他編, 『英和對譯 袖珍辭書』	天地萬物, 宇宙, 本體, 造物者, 性質, 天地自然ノ道理, 品種	自然ノ, 天造ノ, 生レ得タル, 當リ前ノ, 天地萬物ノ
1864 (프)	村上英俊 著, 『佛語明要』	自然, 性質	性質
1867 (미)	James Curtis Hepburn 編譯, 『和英語林集成』	sho, shitsz, umaretszki, seishitsu, sho-ai, sei	umaretszki-no, atarimaye, tozen
1869 (중)	斯維爾士維廉士(S. Wells Williams) 著, 『英華字彙』	性, 天理	天性的
1872 (미)	『和英語林集成』 [증보재판]	sho, shitsz, umaretszki, seishitsz, sho-ai, sei, mochi-maye	umare-tszki no, atarimaye no, tozen
1873 (영)	柴田昌吉・子安峻 共編, 『附音插圖 英和字彙』	天地, 萬物, 宇宙, 品種, 本體, 自然, 天理, 性質, 造物者	自然ノ, 天造ノ, 生得ノ, 當然ノ, 天地萬物ノ
1875 (영)	Ernest Mason Satow, Ishibashi Masakata, <i>An English-Japanese Dictionary of the Spoken Language</i>	umare-tsuki, seishitsu, tenchi no bambutsu	shizen no, jinen no, atarimae no. 기타: Naturally: shizen(c)ni; shizen; shizen to; jinen(c)ni
1881 (일)	井上哲次郎 他編, 『哲學字彙』	本性, 資質, 天理, 造化, 宇宙, 洪鈞, 萬物	合性, 自然, 天真
1884 (일)	井上哲次郎 他編, 『改訂增補 哲學字彙』	本性, 資質, 天理, 造化, 宇宙, 洪鈞, 萬物	合性, 自然, 天真
1885 (영)	Peter Austin Nuttall 著・棚橋一郎 譯, 『英和雙解字典』	天地ノ法, 萬物ノ規, 品種, 物理, 本性, 資質, 造化, 洪鈞, 萬有, 宇宙, 本體, 自然, 天理, 性質, 造物者	自然ノ, 順柔ノ, 寛容ナル, 天造ノ, 生得ノ, 當然ノ, 萬有ノ

1886 (미)	『和英語林集成』 [증보3판]	sho, shitsz, umaretszki, seishitsz, sho-ai, sei, mochi-maye, banyu, uchu, tenri	umaretszki-no, atarimaye, tozen, tennen, jinen
1888 (미)	島田豊 纂譯, 『附音插圖 和譯英字彙』	性, 天性, 種類, 資質, 物理, 事物, 天地ノ理, 宇宙, 創造, 造化, 宇宙 ノ構造ノ諸力, 情愛, 愛 慕, 正道ヲ守ルコト...	天性ノ, 自然ノ, 天然 ノ, 天真ノ, 肝要ナル, 本性ノ, 天法ニ從ヘル, 正シキ, 善キ, 遵理ノ...
1888 (미)	Frederick Warrington Eastlake · 棚橋一郎 共譯, 『ウェブスター氏新刊大 辭書: 和譯字彙』	性, 天性, 天地, 萬物, 宇 宙, 品種, 本體, 自然, 天 理, 性質, 創造, 造化, 造 物者, 宇宙, 諸構造力...	自然ノ, 天造ノ, 天性 ノ, 生得ノ, 當然ノ, 天 地萬物ノ, 肝要ナル, 正 シキ, 善キ, 順理ノ...
1884-1889 (미)	尺振八 編, 『明治英和字典』	性, 天性, 種類, 質, 物 理, 事物, 天地ノ理, 天 理, 宇宙, 創造, 天地結 構ノ法 宇宙ノ構造ノ 諸力...	天性ノ, 自然ノ, 天然 ノ, 肝要ナル, 本性ノ, 天法ニ從ヘル, 正シキ, 善キ, 遵理ノ...
1912 (일)	井上哲次郎 · 元良勇次 郎 · 中島力造 編, 『英獨佛和 哲學字彙』	物然, 性, 本性, 性質, 性格, 資質, 天理, 造化, 宇宙, 洪鈞, 萬有, 自然	合性的, 自然的, 天眞 的

1. 저본이 알려진 사전들은 그 계통을 표시했다. 즉, (네)—네덜란드, (프)—프랑스, (중)—중국, (영)—영국, (미)—미국 등이다. 2. 각 사전들이 초판 이후에도 증보 재판되는 경우, 역어에 변화가 보일 때에만, 그것을 기술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메이지 초중기의 사전류에서 自然은 nature는 물론 natural이나 naturally의 역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것은 당시에 ‘스스로 그러한’과 같은 전통적 自然 개념이 natural이나 naturally와 같은 형용사나 부사वाद 잘 어울릴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1880년대를 넘어서면서 自然은 natural이나 naturally의 역어로부터 nature의 역어로 이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대로 당시 nature의 역어로 등장한 自然은 크게 두 가지 의미, 즉 사물의 ‘본성’이나 ‘내재적 힘’의 의미와, ‘외적 사물의 집합적 총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사전 자료만으로는 nature의 역어로서의 自然이 어느 쪽을 의미했는지 구분하

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메이지인들이 사용하던 自然의 용례를 추출하여 그 대체적인 경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경합에서 승리한 自然이라는 역어

메이지를 전후하여 自然이 nature의 역어들 중 하나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서구어 nature와 전통적 自然 개념 사이의 유사성 때문으로 보인다. 앞의 니시 아마네의 번역문에서 보았듯이, 영어 nature가 自然으로 번역되었을 때, 自然은 ‘본성’이나 ‘내재적 힘’을 의미했다.³⁷⁾ 그것은 근대 이후 영어 nature가 가지게 된 두 가지 주요한 개념 중에서 그리스어의 ‘푸시스’에 뿌리를 둔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동아시아 전통의 自然 개념, 즉 ‘스스로 그러한’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바로 그러한 유사성이 메이지를 전후로 自然이 별다른 저항 없이 nature의 역어들 중 하나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메이지 지식인들이 nature를 ‘외적 대상세계’의 의미로 이해할 때는 그것을 주로 우주, 천지, 만물, 만유 등의 용어로 번역했다는 점이다. 니시가 ‘외적 대상세계’로서의 nature를 ‘천지’라고 번역했음은 앞에서 본 대로이다. 아울러 후쿠자와의 경우는 그의 최초의 출간물로 알려지는 『증정 화영통어(增訂華英通語)』(1860)에서 自然이라는 용어에 “of course”라는 용어를 대응시켰고,³⁸⁾ 그 후의 저작에서는 ‘외적 대상세계’의 nature를 보통 ‘天然의 物’이라고 번역했다. 마찬가지로 메이지의 유물론자 나카에 초민(中江兆民, 1847-1901)은 프랑스어 nature에 ‘조물(造物)’이라는 역어를 즐겨 사용했고, 미야케 세츠레이(三宅雪嶺, 1860-1945)도 nature의 역어로는 주로 ‘만유’를 사용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동물학자 이시카와 치요마쓰(石川千代松, 1860-1935)는 『백공개원(百工開源)』(1886)의 서언(緒言)에서 “nature and art”를 ‘천조(天造)와 인공(人工)’으로 번역했고, 진화론자 카토 히로유키는 ‘자연도태(natural selection)’를 ‘자연스러운 도태’의 의미로 사용함과 동시에 ‘외적 대상세계’에는 ‘우주만물’ 또는 ‘만물’이라는 용어

37) 사토(佐藤)도 일본에서 自然이 처음 nature의 역어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성’의 의미를 가졌다고 지적한다. 佐藤喜代治, 앞 책, 180쪽.

38) 慶應義塾 編, 『福澤諭吉全集』第1卷(東京: 岩波書店, 1959), 229쪽.

를 대응시켰다. 물론, 이 같은 경향은 여전히 전통적 自然 개념에 익숙했던 메이지 초중기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외적 대상세계’의 의미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천지, 만물, 조물, 만유, 우주만물 등이 아니라, ‘自然’이 결국 ‘외적 대상세계’를 가리키는 nature의 유력한 역어로 등장했는가라는 점이다. 문헌적으로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약간의 논리적 추론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야나부 아키라는 일본에서 nature가 ‘외적 대상세계’의 ‘自然’으로 최초로 번역된 것은 1889(메이지22)년경이라고 지적했다.³⁹⁾ 이 해에 『국민의 벗(國民の友)』과 『여학잡지(女學雜誌)』의 지면에서는 모리 오우가이(森鷗外, 1862-1922)와 이와모토 요시하루(巖本善治, 1863-1942) 사이에 문학과 예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와모토가 “최대의 문학은 自然 그대로 自然을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한데 반해, 모리는 문학을 예술로서의 문학과 과학으로서의 문학으로 구분하고, 『논어』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등 예술로서의 문학이 묘사한 것은 “自然이 아니라, 정신이다”라고 주장했다. 야나부는 이 논쟁에서 이와모토가 말한 ‘自然’은 ‘스스로 그러한’과 같은 전통적 개념이었고, 모리가 말한 ‘自然’은 nature의 역어로서 ‘외적 대상세계’를 가리켰다고 한다. 즉, 그러한 ‘自然’ 개념의 혼동이 둘 사이의 논쟁을 이끈 근본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메이지 시대 自然 개념을 둘러싸고 일어난 혼란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논쟁에서 모리가 이해했던 自然은 ‘정신’과 ‘대립’하는 개념이었다는 사실이다. 알다시피 오늘날 천지, 만물, 조물, 만유 등은 넓은 의미의 ‘自然’에 통합되는 개념들이다. 테라오는 근대 이전에 자연계를 가리켰던 용어들을 조사하여 그것들을 크게 ‘천지계(天地系)’와 ‘만물계(萬物系)’로 구분했다.⁴⁰⁾ 즉, 천지, 건곤(乾坤), 우주, 세계 등은 ‘천지계’에, 만물, 만사(萬事), 만상(萬象), 만유 등은 ‘만물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대 이전에 ‘천지’와 ‘만물’의 개념 간에 서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천지’가 그릇과 같은 것이라면, 만물은 그릇 안에 포함되는 내용물과 같은 것이었다.⁴¹⁾ 따라서 근대 이전

39) 柳父章, 『翻譯の思想: 自然とnature』, 75쪽.

40) 寺尾五郎, 앞 책, 166쪽.

41) 예를 들어 각주 27에서 보았듯이, 에도시대 ‘란가쿠샤’ 히로세 켄쿄의 경우에는 ‘천지’와 ‘만유’를 구분하고 있다. 즉, 그는 ‘만유’를 ‘부재(覆載,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물(物)이라고 보았다.

의 학자들은 ‘천지’라는 용어로 자연계 전체를 포괄하는데 부족함을 느낄 때, ‘만물’을 함께 사용하곤 했다.⁴²⁾ 이렇게 볼 때, ‘천지’와 ‘만물’은 부분적 대상세계를 가리키는 용어였고, 그런 점에서 ‘정신’ 밖의 ‘외적 대상세계’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더군다나 독일에서 유학했던 모리는 독일어 Natur가 Geist(정신)과 대립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천지’, ‘만물’ 등의 부분적 대상세계보다는 自然 개념을 ‘스스로 그러한’에서 ‘스스로 그렇게 된 것’으로 확장시켜 ‘정신’ 밖의 ‘외적 대상세계’ 전체를 총괄하고자 했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어찌되었든 ‘自然’이 자연계의 의미로 메이지 사회에 등장한 이후, 그것은 더욱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自然’은 곧 과학과 결합했다. ‘自然’이 과학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대상적 세계’가 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메이지 중기 이후, 자연과학의 분업화는 인식 주체의 인간 밖으로 분리된 외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촉진시켰다. 물리학과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대상 세계’의 각 분야에 착목하여 그것이 가진 다양한 얼굴들을 파헤치는 작업이었다. 1880년대를 전후로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각종 과학 학회들은 그 같은 작업들을 주도했다.⁴³⁾ 自然이라는 어휘가 ‘과학’과 확실한 관련을 갖게 된 계기는 19세기말 이토 도쿠타로(伊藤篤太郎)의 논설이었다. 1898(메이지31)년 6월 이토는 『박물학 잡지(博物學雜誌)』의 발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연적 과학(自然的科學), 즉 동물학, 식물학, 생리학, 지질학, 고생물학 등의 제학과에 비해, 이학적 과학(理學的科學)이라 부르는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의 과목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통 고등교육에서도 이것을 자주 장려한다. 그런데 자연과학, 즉 박물학에 있어서는 항상 이것을 냉대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이학적 과학처럼 중요과목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것으로 여긴다.⁴⁴⁾

42) 사이구사는 카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1630-1714)의 경우, ‘천지’만으로 인간을 둘러싼 인간 이외의 것을 표현하기 부족할 때, ‘만물’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했다고 한다. 三枝博音, 앞의 논문, 325쪽.

43) 대표적인 과학 학회들을 들어보면, 東京醫學會社(1875), 東京數學會社(1877), 東京化學會(1878), 東京生物學會(1878), 東京地震學會(1880), 東京藥學會(1881), 東京植物學會(1882), 東京氣象學會(1882) 등이다.

44) 伊藤篤太郎, “博物學雜誌ノ發刊ヲ祝ス”, 日本科學史學會 編,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卷, 118쪽.

일본의 문헌에 ‘자연과학’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이것이 최초로 여겨진다. 이토는 이 논설에서 동물학, 식물학, 생리학, 지질학, 고생물학 등을 ‘자연적 과학’으로 분류하고,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은 ‘이학적 과학’으로 분류했다. 이때 그는 ‘자연적 과학’에 natural science라는 원어를 붙이고, ‘이학적 과학’에는 physical science를 붙였다. 여기서 ‘자연적 과학’ 즉 ‘자연과학’이란 ‘인위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어떤 것들’, 다시 말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였다고 볼 수 있다. 이토가 말한 ‘자연과학’은 동물, 식물, 지질, 고생물 등 사실상 박물학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과도기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자연과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자, 그것은 곧 메이지 지식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훗날 동경제국대학 철학과를 주재했던 구와키 겐요쿠(桑木嚴翼, 1874-1946)는 1901년 독일철학의 번역서에서 “Aufschwung der Naturwissenschaften”을 ‘자연과학의 발흥(自然科學の勃興)’이라 번역했다.⁴⁵⁾ 카토 겐치(加藤玄智, 1873-1965)의 경우는 『종교의 장래(宗教之將來)』(1901)라는 저서에서 “근세 자연과학의 진보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자연과학의 광명(光明)이 한 순간에 우리 학술계를 비춘 결과, 우리 인류의 사상은 갑자기 일전(一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중세 말부터 근세 초에 걸쳐 영국에 로저 베이컨과 프랜시스 베이컨 두 명이 실험 관찰에 근거한 자연과학의 연구를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구비(口碑)적 전설 중 로마 법왕의 교권 복종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서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등 자연과학자들이 계속 배출되어 종래의 천동설은 쇠퇴하고 지동설이 일어났고, 지구중심설을 배척하고 태양중심설은 그 승리를 학계에 드높이게 되었다.”⁴⁶⁾고 역설했다. 카토는 여기서 ‘자연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오늘날의 개념과 거의 다름없이 사용했던 것이다. 이후 ‘자연과학’이라는 용어는 1903년 이노우에 테츠지로, 타나하시 겐타로(棚橋源太郎, 1869-1961) 등 대표적 지식인들의 저서에 채용되었고,⁴⁷⁾ 『자연과학과 불교(自然科學と佛教)』(石川成章, 1907), 『자연과학(自然科學)』(齊田功太郎 編譯, 1909) 등 책 제목에도 등장함으로써 일본에 확실하게 정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nature의 역어로 성립한 自然은 처음에 인위에 의한 것이 아닌 사물의 ‘본

45) 桑木嚴翼 述, 『ジーベルト氏最近獨逸哲學史』(東京: 東京專門學校出版部, 1901), 92쪽.

46) 加藤玄智, 『宗教之將來』(京都: 法藏館, 1901), 212-213쪽.

47) 井上哲次郎, 『巽軒講話集』初編, (東京: 博文館, 1903), 138쪽; 棚橋源太郎, 『文部省講習會 理科教授法講義』(東京: 寶文館, 1903), 1쪽.

성'이나 '내재적 힘'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이후 '정신'과 대립하여 그러한 본원적 힘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대상세계'를 총괄하게 되었고, 19세기 말 이후에는 과학과 결합하여 '자연과학'이라는 복합어가 일본에 널리 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II. 구한말 조선의 사전류와 nature의 역어들

일본에서 自然은 늦어도 19세기 말에는 nature의 역어로 그 지위를 확립해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조선의 경우에 自然은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nature의 역어로 등장했을까?

구한말 조선의 외국어 사전들은 주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1880년 프랑스의 리델(Félix C. Ridet, 1830-1884) 신부가 요코하마에서 간행한 『한불사전(韓佛字典)』을 보면, '즈연' 항목은 없지만, '즈연이'라는 항목은 “De soi-meme, par hasard, naturellement(영어의 by itself, by any chance, naturally)”⁴⁸⁾로 되어 있다. 또 '본성(333쪽), 성미(403)' 등은 nature를 취하고, “턴성(513), 성품(403), 성식(404)” 등은 naturel(영어 natural)을 취하고 있다. 즉, nature와 naturel의 역어들 사이에는 큰 개념적 차이를 볼 수가 없다. 이어서 1890년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가 간행한 『영한자전(英韓字典)』과 『한영자전(韓英字典)』을 살펴보면, nature의 역어로는 “성품, 성미, 본성, 턴성” 등이 나와 있고, natural의 역어로는 “근본, 턴성” 등이 대응하고 있다.⁴⁹⁾ 이 밖에 naturally에 '즈연이'가 대응하고 있는 점은 『한불사전』과 동일하지만, '즈연'은 아직 nature나 natural의 역어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

이듬해인 1891년 영국인 선교사 제임스 스캇(James Scott, 1850-1920)은 *English-Corean Dictionary*를 간행했다. 이 사전에서는 nature가 “만물, 성품, 성미, 기운”으로 번역되었고, natural과 naturally는 “절노, 스스로, 즈연”이라고 번역되었다.⁵⁰⁾ '즈연'은 여기서 natural과 naturally의 역어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

48) Félix Clair Ridet, 『韓佛字典 (Dictionnaire Francais-Coreen)』 (Yokohama: C. Levy, 1880), p. 536.

49) Horace Grant Underwood, 『英韓字典 (English-Korean Dictionary)』 (Yokohama: Kelly & Walsh, 1890), p. 177.

50) James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pp. 220-221.

서 1897년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의 『한영사전(韓英字典)』을 보면, ‘즈연’의 항목은 “of itself, naturally so, self-existent, of course”로 되어 있다.⁵¹⁾ nature에 대응하는 역어들을 찾아보면, “성품(564), 성미(563), 텃성(700), 성식(564)” 등이다. 아울러, ‘텃연히’라는 항목은 “naturally, simply, unadornedly(698)”라고 되어 있다. 이 게일의 사전은 1911년 증보 간행되었는데, 여기서도 ‘즈연’의 항목은 1897년의 사전과 동일하다.⁵²⁾ 마찬가지로 nature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보면, “성품(558), 성질(557), 성미(554), 텃성(984)” 등이다. 1916년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가 간행한 『영한사전(英韓字典)』에서는 nature가 “본성, 성질, 조화, 우쥬”로 natural은 “즈연, 당연, 텃부” 등으로 번역되었다.⁵³⁾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구한말에 간행된 외국어 사전류에서 ‘자연’은 20세기 초까지도 주로 natural이나 naturally에 대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의 사전들이 1880년대까지도 自然을 natural이나 naturally로 번역 하던 사정과 비슷하다. 즉, ‘자연’이라는 용어는 조선에서 매우 늦게까지 형용사 natural이나 부사 naturally로 기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한말의 사전류에서 ‘자연’이 최초로 nature의 역어로 등장한 것은 1925년 언더우드가 간행한 『영선사전(英鮮字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nature는 (1)텃성, 본성, 성질. (2)텃디만물, 삼라만상, 만유, 조화, 텃연, 즈연. (3)인성, 텃진, 인정. (4)테력, 성활작용. (5)텃연상티, 야만, 난치로 잇는 것. (6)종류, 품, 질 등 실로 다양한 역어들을 취하고 있다.⁵⁴⁾ 이때 ‘즈연’이 ‘외적 사물의 집합적 총체’와 가깝게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이 “텃디만물, 삼라만상, 만유” 등 보통 19세기 이전 ‘외적 대상세계’를 가리켰던 용어들과 함께 (2)에 속해 있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역시 사물의 내재적 ‘본성’ 등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1920년에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는 한국어 ‘즈연’을 일

51) James Scarth Gale, 『韓英字典 (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Kelly & Walsh, 1897), p. 728.

52) James Scarth Gale, 『韓英字典 (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Printed by Fukuin Printing Co., 1911), p. 911.

53) George Heber Jones, 『英韓字典 (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Kyo Bun Kwan, 1916), pp. 111-112.

54) Horace G. Underwood & Horace H. Underwood, 『英鮮字典 (An English-Korean dictionary)』 (Seoul: Y.M.C.A Printing Department, 1925), p. 359.

〈표 2〉 구한말 조선의 사전류에 보이는 nature와 natural의 역어들

사전 종류	nature의 번역어	natural의 번역어
Félix C. Ridel 『韓佛字典』 (1880)	본성(本性), 성미(性味)...	턴성(天性), 성품(性稟), 성식(性息)...
Horace Grant Underwood 『英韓字典』 (1890)	성품, 성미, 본성, 턴성.	근본, 턴성. Naturally: 원간, 턴싱, 즈연이, 근본, 절노.
James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1891)	만물, 성품, 성미, 기운.	절노, 스스로, 즈연. (Naturally도 위와 동일한 역어를 취함).
James S. Gale 『韓英字典』 (1897)	성품(性稟), 성미(性味), 턴성(天性), 성식(性息).	해당 항목 없음. Naturally: 턴연히(天然)...
James S. Gale 『韓英字典』 증보(1911)	성품(性稟), 성질(性質), 성미(性味), 턴성(天性).	해당 항목 없음. Naturally: 턴연히(天然)...
George Heber Jones 『英韓字典』 (1916)	본성(本性), 성질(性質), 조화(造化), 우주(宇宙).	즈연(自然), 당연(當然), 턴부(天賦).
Horace Grant Underwood and Horace Horton Underwood 『英鮮字典』 (1925)	(1)턴성(天性), 본성(本性), 성질(性質). (2)턴디만물(天地萬物), 삼라만상(森羅萬象), 만유(萬有), 조화(造化), 턴연(天然), 즈연(自然). (3)인성(人性), 턴진(天真), 인정(人情). (4)테력(體力), 싱활작용(生活作用). (5)턴연상타(天然狀態), 야만(野蠻), 난치로 잇는 것. (6)종류(種類), 품(品), 질(質).	(1)턴연의 天然, 즈연의 自然. (2)싱리의 生來, 턴성의 天性, 턴부의 天賦. (3)인정의 人情. (4)싱샤의 生寫, 산것 긋흔. (5)즐거워흐는, 괴로워흐지 안는. (6)야싱의 野性, 즈싱의 自生, 스싱의 私生. (7)당연흔 當然, 괴이치 안은 怪異.

1. 한자어는 사전에 나와 있는 경우 한글과 함께 그대로 병기했다.
2. 한불·한영사전류는 nature와 natural의 역어로 예상되는 용어들을 역추적했다.

본어로 ‘自(おのづか)らなること(스스로 되어가는 것)’라고 쓰고 있다.⁵⁵⁾ 나아가 『영선자전』에서 ‘자연’은 natural의 역어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놓칠 수 없다. 즉, natural의 항목의 (1)에 보이는 ‘즈연의 自然’은 여전히 형용사나 부사적 용법을 가졌던 것이다. 나아가 『영선자전』에서는 “natural science”의 항목이 등장하여 “즈연과학”으로 번역되었고, “natural selection”은 “즈연도태”로 번역되고 있다.⁵⁶⁾

이상으로 볼 때, 조선의 사전류에서 ‘자연’은 20세기 초까지도 서술적인 의미, 즉 ‘스스로 그러한’과 같은 부사나 형용사의 활용을 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이지 일본보다 서양학문에 대한 수용이 늦었던 조선의 경우, ‘자연’의 전통적인 개념이 매우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VIII. 조선인들의 일본 유학과 ‘자연과학’이라는 용어

많은 연구자들은 ‘과학’이라는 용어가 19세기 일본에서 태동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과거지학(科擧之學)’의 축약어로서 중국과 조선에서 사용된 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조선중기의 실학자 이익(李瀼, 1681-1763)은 말년에 완성한 『성호사설(星湖僿說)』의 「경사문(經史門)」에 「과학해도(科學害道)」라는 항목을 놓아, ‘과거(科擧)의 학’이 진실된 학문에 미치는 폐습을 지적했다.⁵⁷⁾ 물론 19세기 메이지 일본인들이 ‘과학’을 “science”의 역어로 새롭게 주조했을 때, 그것은 종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용어였다. 그렇다면, 19세기 이전에 동아시아에는 ‘과학’이 없었을까? ‘과학’은 자연계에 대한 서양 근대문명의 독특한 접근 방식에 의거하여 탄생한 science를 19세기 메이지 일본인들이 번역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세기 이전의 동아시아에는 ‘과학’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학’을 science의 역어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취한다면, 그것과는 다른 사유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곧 서구근대

55) 朝鮮總督府 編, 『朝鮮語辭典』(京城: 大和商會, 1920), 698쪽.

56) 『英鮮字典(An English-Korean dictionary)』, *op. cit.*, p. 359.

57) 李瀼, 『星湖僿說』下(慶熙出版社, 1967), 341-342쪽. 이 밖에 다음 논문들을 참조. 周程, 『福澤諭吉と陳獨秀: 東アジア近代科學啓蒙思想の黎明』(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10), 125-130쪽; 佐々木力, 『科學論入門』(東京: 岩波新書, 2010), 2-6쪽; 김성근, “일본의 메이지 사상계와 ‘科學’이라는 용어의 성립과정”, 『한국과학사학회지』 25, 2(2003), 131-146쪽.

의 science와 그 역어로 성립한 ‘과학’은 ‘자연’ 개념의 근대적 전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면 조선에서 ‘자연’이라는 용어를 ‘외적 사물의 집합체’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의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은 조선 말기의 개화사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저작일 뿐만 아니라, ‘철학’, ‘은행’, ‘문명개화’ 등 일찍이 조선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던 다양한 근대어들을 담고 있다. 유길준은 이 『서유견문』에서 오늘날의 nature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만물(萬物)’이나 ‘천지만물(天地萬物)’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⁵⁸⁾ 정작 ‘자연’에 대해서는 “天地間の 其自然^호 根本”⁵⁹⁾ 등의 표현처럼, 사실상 ‘자연스러움’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이러한 ‘자연’의 용법은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갑오경장 직후에 간행된 교과서들 중에 학부편찬(學部編纂)의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1895), 『소학독본(小學讀本)』(1895),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1896) 등 세 권을 조사해보면, ‘자연’이라는 용어가 각각 8회, 9회, 4회 등장한다.⁶⁰⁾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자연히’와 같은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었고, 외적 사물의 집합적 총체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만물’이 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문헌에서 自然이 nature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법학 분야의 경우, 1881(메이지14)년 프랑스의 법학자 보와소나드(G. E. Boissonade)의 강의록을 사법성 법학교의 이노우에 미사오(井上操)가 『성법강의초(性法講義抄)』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을 때, 自然이라는 용어를 성(性)을 대신하여 사용한 것이 최초였다고 한다.⁶¹⁾ 현재까지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에서 자연법의 논의 안에 ‘자연’이 사용된 것은 1896년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2호(1896년 12월 15일자)를 보면, 서양의 법학 중에서 자연법학파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此學派의 說者—多小異義가 有^호 故로 其主要^호 學說를 枚舉^호노니 一自然法은 人

58) 兪吉濬, 『西遊見聞』, 兪吉濬全書(1), (一潮閣, 1996), 350쪽.

59) 같은 책, 384쪽.

60) 이 교과서들은 1977년 한국학문헌연구소에서 영인한 『한국 개화기 교과서 총서』 제1권에 실려 있다. 참고로 ‘자연’의 용례가 보이는 페이지들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소학독본』: 22, 23, 46, 55, 80, 81, 92, 132. 『소학독본』: 164, 173(2회), 176, 177, 182(2회), 202(2회). 『신정심상소학』: 310, 316, 393, 438. (총서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함).

61) 柳父章, 『翻譯の思想: 自然とnature』, 75-78쪽.

類가 自然狀態의 生息호는디 當호야 行호는 法則이라 호니 이 뜻시 自然生態란거슨 人類가 아즉 社會編成호기 前時代에 狀態를 想像호야 言호를 指호이니 此說은 루스 우氏一派社會契約主義를 奉호는 學者唱設호일네라.⁶²⁾

여기서의 ‘자연’은 인위적인 문명 즉 사회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저자는 자연법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은 nature의 역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대상세계라기 보다는 ‘본성’의 nature와 가까웠다. 그러면, ‘자연’이 외적 대상세계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그 정확한 시기를 규명하기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필자는 1906년경이 비교적 이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갑오경장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유학했다. 그들은 친목도모와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각종 학회를 조직했는데, 1906년 도쿄에서 조직한 태극학회(太極學會)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 태극학회는 학회의 기관지로서 매월 『태극학보(太極學報)』를 간행했다. 하정생(荷汀生) 김만규(金晩圭)는 『태극학보』 제5호에 쓴 「農者는 百業의 根本」(1906년 12월)이라는 논설 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自然은 人生以外의 存호는, 宇宙의 一部分인디, 農業과 其他生産을 助호는 者를 云호미니, 空氣, 日光, 田野, 沼澤, 山林等이라, 自然을 分호야 言호면, 自然物, 自然力, 土地니라.⁶³⁾

김만규는 ‘자연’을 ‘인간 이외’에 존재하는 우주의 일부로 간주하고, 그것을 자연물, 자연력, 토지로 나누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자연물’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형 물체’로 어계, 금수, 공기, 물 등이고, ‘자연력’이란 풍력, 수력, 인력, 지열, 자석력 등 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무위로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김만규가 사용한 ‘자연’이라는 어휘는 ‘자연력’이라는 ‘스스로 그러한’ 힘과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자연물’을 가리켰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자연’의 용법은 당시로서는 역시 일반적이지 않았던 듯, 『태극학보』에 기고한 다른 필자들은 ‘자연계’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있다.⁶⁴⁾ 따라서 김만규가 ‘자연’이라는 어휘를 자연물

62) 『大朝鮮獨立協會會報』 제2호 (亞細亞文化社, 1978), 31쪽.

63) 金晩圭, “農者는 百業의 根本”, 『太極學報』 제5호(亞細亞文化社, 1978), 316쪽.

64) 예를 들어, 『太極學報』 제3호(1906년 10월)에 유전(劉銓)이 기고한 “人格의 發達”에는

까지 확장하여 사용한 것은 ‘자연’ 개념이 ‘외적 대상세계’로 정착하는데 선구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흥미로운 것은 그 같은 ‘자연’의 용법은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과학’을 science의 의미로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도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1906년 『태극학보』를 발간한 장응진(張膺震)은 그 잡지의 제3호에 기고한 「我國々民教育의 振興策」(1906년 10월)이라는 논설에서 ‘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⁶⁵⁾ 나아가 장응진은 ‘과학’과 ‘자연’의 복합어인 ‘자연과학’이라는 합성어도 이 시기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학론(科學論)」(1906년 12월)이라는 제목의 논설 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如此한 自然的現象(事實)은 一一히 枚擧기 難한 此等現象에 對한는 吾人의 知識이 經驗上大概一定한 法則으로 從出함을 推想할지니 此等種種의 現象을 吾人이 事實로 研究한 此間에 一定한 共通의 法則을 發見한 者를 自然科學或事實科學이라 稱한니 天文學地理學博物學物理學化學心理學其他種種의 區別이 有하고...⁶⁶⁾

장응진은 ‘과학’을 자연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인간사회의 각종 규칙의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적 과학’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장응진이 말하는 ‘자연과학’이란 윤리학, 정치학, 미학, 논리학 등의 ‘규범적 과학’과 구분되는 것으로, 천문학, 지리학, 박물학, 물리학, 화학, 심리학 등 자연적 현상으로부터 일정한 공통의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을 뜻했다. 이 ‘자연과학’의 범주는 심리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외적이지만, 1898년 이토가 분류했던 ‘자연과학’보다 오늘날의 ‘자연과학’에 보다 가깝게 사용되었음은 분명하다. 이토 이후, 신칸트학파의 철학 등이 일본에 수용됨으로써 학문 분야들의 정립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문화과학, 역사과학 등 소위 인문과학과 대항하여 스스로의 범주를 확립해왔던 ‘자연과학’은 일본에 유학한 장응진의 논설 안에 거의 오늘날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 ‘과학’, ‘자연과학’이라는 근대학문의 핵심 용어들은 20세기 초 일본에 유학했던 조선인 유학생들을 통해 조선어 안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 자연계’라는 용어가 보인다. (같은 책, 169쪽). 또 제5호(0906년 12월)에 김지간(金志侃)의 “歲暮所感”에는 ‘자연계’라는 용어가 나온다. (같은 책, 324쪽).

65) 張膺震, “我國々民教育의 振興策”, 『太極學報』 제 3호(亞細亞文化社, 1978), 152쪽.

66) 張膺震, “科學論”, 『太極學報』 제 5호(亞細亞文化社, 1978), 292쪽.

IX. 나오며

이상, 동아시아에서 ‘자연’이라는 근대어휘의 탄생과 정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대 중국에서 상형문자로 탄생한 ‘自然’은 조선의 경우 늦어도 12세기 중엽까지는, 일본의 경우 에도시대 이전까지는 양국에 수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의미는 오늘날 서구어 nature의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외적 사물의 집합적 총체’와는 달리, ‘스스로 그러한’과 같은 사물의 자발적 ‘상태’를 표현했다.

(2) 그리스어 ‘푸시스(*physis*)’와 그 라틴어역인 ‘나츄라(*natura*)’는 주로 사물에 내재된 자발적 ‘본성’을 뜻했다. 근대 이후 자연철학자들의 등장과 함께, ‘나츄라’는 전래의 개념에 더하여 인간으로부터 독립한 ‘외적 대상세계’로서의 개념을 새롭게 포함하게 되었다. 이후 ‘나츄라’는 영어와 프랑스어 nature, 독일어 Natur, 네덜란드어 natuur 등으로 번역되었다.

(3) 메이지 전후의 사전들에서 自然은 nature의 번역어들 중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自然이 nature의 역어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개념 간의 유사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메이지 전후 自然이 nature의 역어로 취해질 때, 그것은 보통 사물의 내적 힘이나 ‘본성’ 등을 의미했다. 그러나 nature가 ‘외적 대상세계’를 뜻할 때, 그것은 보통 천지, 만물, 만유 등으로 번역되었다.

(4) 일본의 사전들에서 自然은 1880년대까지도 natural이나 naturally의 역어로 등장하기도 했다. 조선의 경우, 그러한 경향은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전통적인 自然 개념이 natural이나 naturally와도 쉽게 조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 19세기 후반, ‘외적 대상세계’를 뜻하는 nature의 역어로 自然이 천지, 만물, 만유 등 전통적 용어들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인식 밖의 대상세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自然은 자발적 ‘본성’에서 그 ‘본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자연물)’으로까지 개념을 확대시켜, ‘정신’과 구분되는 ‘외적 대상세계’ 전체를 총괄할 수 있게 되었다.

(6)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인들이 ‘自然’을 ‘외적 사물의 집합적 총체’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06년 『태극학보』의 논설 안에서였다. 비슷한

시기에 ‘자연과학’이라는 메이지의 신조어도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들을 통해 습득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메이지 일본에서 自然이라는 어휘가 서구어 nature의 번역어로 성립하는 과정과 그것이 조선으로 이입된 과정을 사전류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自然’이라는 어휘가 사전류 이외의 문헌들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후속의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논문 투고일: 2010년 10월 18일

심사 완료일: 2010년 12월 20일

<ABSTRACT>

The Translation of “Nature” into “*Shizen*” 自然 in Japan and “*Chayŏn*” in Korea

KIM Sungkhu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his paper analyses how the modern term “nature” was translated into “*chayŏn*” and “*shizen*” in Korea and Japan. It is said that the Chinese character “*ziran*” 自然 was coined in ancient China and imported to Korea and Japan. Before the 19th century, “*chayŏn*” and “*shizen*” were generally used as the concepts of the nature of things and of some spontaneous status of things. When the term “nature” was imported into Japan during the 19th century, however, there was some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nature” and “*shizen*”. The concept of “nature” included collective things in external world divided from the human mind. When “nature” was translated into “*shizen*”, the traditional term “*shizen*” included the concept of “nature” itself. After the modern term “*shizen*” was used in Meiji Japan, it was also imported to Korea. The Korean students, who studied Japanese modernization in Tokyo, accepted the modern term “*shizen*”. They translated the modern term “*shizen*” into “*chayŏn*” as the Korean word. The translation of “nature” into “*shizen*” in Japan and “*chayŏn*” in Korea illustrates the change of the views and understanding of nature in both countries since the 19th century.

Keywords: nature, language, science, translation